

오순절 후 여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6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7월 9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홍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 장 “다 찬양하여라” (통일 2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 번 (시편 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예레미야 1:11-19	양용일집사
찬 양 Anthem	나는 아네 그의 계획	찬양대
설 교 Sermon	“무엇을 보십니까?” (What do you see?)	정재홍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515 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통일 25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지난 3 년간의 코비드(covid-19)를

지나 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우리의 안일과

편안함으로 바꾸었습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특권을 받았지만, 마음에 준비함 없이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기도 했고, 예배를 통한 기쁨을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 종교의식을

통한 나 자신의 위로만을 찾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걸 모양은 경건하나 실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성이 부족했으며,

우리의 찬송은 입술에서만 울리는 소리로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 1: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개역개정 렘 1:19)

“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will not overcome you,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NIV Jeremiah 1: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9 (주일)	7/10 (월)	7/11 (화)	7/12 (수)	7/13 (목)	7/14 (금)	7/15 (토)
본문	수11 시144 렘5 마19	수12,13 시145 렘6 마20	수14,15 시146,147 렘7 마21	수16,17 시148 렘8 마22	수18,19 시149,150 렘9 마23	수20,21 행1 렘10 마24	수22 행2 렘11 마2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12 수 오후7:30)	룻기 (7) - “핑계없는 순종” (룻 3:1-6)
토요 새벽기도회(7/15 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7) - “재림과 심판”(살전 4:13-18)

지난 주일(7/2) 말씀

“무엇을 들습니까?” (요한복음 5:24-29)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모두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귀한 것은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의 귀를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듣는 귀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듣는 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17 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만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1. 믿음의 귀입니다. 성령이 우리 양심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 2: 7 절 상반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신진대사가 잘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2. 사랑의 귀입니다. 믿음의 귀가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린다면,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3. 소망의 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 소망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히 11:15, 16 절에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고, 사랑의 귀를 가지고 이웃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귀로 하늘나라의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합니다.

설/교/ 메/모